

KOPEC 공개포럼

2010년 G20 아젠다와 한국의 대응과제
The Korea G20, East Asia and Korea

주요 논의 결과

2009년 11월 6일 (금) 07:00 ~ 09:15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코스모스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I. 개요

1. 일 시: 2009년 11월 6일 (금) 07:00 ~ 09:15

2. 장 소: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코스모스룸

3. 주 최: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4. 주 제: 2010년 G20 아젠다와 한국의 대응과제
(The Korea G20, East Asia and Korea)

5. 프로그램

▪ 사회: 양수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회장

○ 07:00 - 07:30 조찬환담

○ 07:20 - 07:30 개회사
- 양수길 KOPEC 회장

○ 07:30 - 07:45 기조연설:
“2010년 G20의 과제와 한국의 역할(The Significance of the Korea G20 Summit for the World, Asia and Korea)”
- 사공일 한국 G20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

○ 07:45 - 08:00 특별초청연설:
“한국 G20 정상회의에 대한 아시아국들의 기대(Asian Expectations on the Korea G20 Summit)”
- 유수프 와난디 (Jusuf Wanandi),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스트 발행인,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공동위원장

○ 08:00 - 09:05 패널토론:
“2010년 G20의 아젠다와 동아시아 및 한국의 대응과제 (The G20 Agenda for Post-Crisis Growth and Challenges to East Asia and Korea)”
- 피터 페트리(Peter Petri), 미국 브랜다이스대학교 경영대

- 학 국제금융학 교수
-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 정태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선임기후변화담당관
- 피터 드리즈데일(Peter Drysdale) 국립호주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

- o 09:05 - 09:15 폐회사
 - 양수길 KOPEC 회장

II. 주요 논의 내용

개회사

양수길 KOPEC 회장

- o 이번 KOPEC 포럼의 취지
 - 2010년 11월 G20의 한국 개최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더 나아가 APEC 지역이 세계 경제에서 새로이 그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목표로 G20 정상회의 전까지 한국의 역할과 향후 정책 개혁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각국 전문가 분들과 관계자분들을 모심.

기조연설: “2010년 G20의 과제와 한국의 역할”

사공일 한국 G20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

- o G20 정상회의의 취지
 -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G7 대신 G20 정상회의가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최초로 개최됨.
 - 2008년 11월 제 1차 G20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후, 2009년 4월 런던

던, 9월 피츠버그에서까지 총 3차례의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음.

o G20 정상회의의 역할

- 현재 금융위기의 효과적 관리, 세계적 협력 구축, 경제 및 금융 차원에서 거시경제정책의 공조, 세계적 금융 감독 체제 구축, 보호무역주의 배격 등에 큰 역할을 함.
- G20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을 고루 포함함으로써 G7보다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음.

o G20 정상회의의 당면 과제

- 2011년부터 G20 정상회의는 매년 개최될 예정임.
-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G20가 국제경제협의체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시기보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더 극심하다고 평가되지만, 지금은 전례 없는 전 세계적 정책 공조와 함께 다양한 출구 전략을 고안 및 이행 중이라는 점에서 훨씬 희망적임.
- G20는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협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또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뿐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역할도 부각되어야 하며, G20가 이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음.
- 각국이 자국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때 전 세계적인 프레임워크 안에서 해야 할 것이며, 시기적절해야 함.
- 위기극복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없으나, 전반적인 출구전략보다는 G20 국가들 사이에서 각국이 특정 지표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야 함.

o 2010년 G20 정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

- 2010년에는 두 번의 G20 정상회의가 캐나다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임.
- 6월 캐나다 회의에서는 출구전략의 이행에 관한 사항이 논의될 것임.
- 11월 한국 회의에서는 주요 정상들이 중·장기 경제운영을 보다 건실하고, 균형 있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초점 맞출 것임.
- 지난 피츠버그 회의에서 합의한 전 세계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재 논의

도 필요함.

-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들에게 금융 안전망을 제공해 주기 위한 국제금융부문의 구조조정도 세계경제개편에 포함되어야 함.
- 각국이 국제금융기관들의 전문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들 기관들은 더 많은 개혁과 개편이 필요함.
- DDA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보호주의를 배격해야 함.
- Non-G20 국가들의 인정을 위해 이들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개발 격차를 줄여야 하며, 한국의 경제 개발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음.
- 모든 노력을 다 하여 한국에서 개최될 G20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며, 이를 통해 G20가 정례화 되는데 기여할 것임.
- 한국이 G20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는 전 세계의 기대에 부응할 것임.

특별초청연설:

“한국 G20 정상회의에 대한 아시아국들의 기대”

Jusuf Wanandi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스트 발행인,
PECC 공동의장

o G20 프로세스의 시작과 과정

- 1999년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시작됨.
- 세계경제구도가 서구중심에서 아시아중심으로 변화한 만큼 아시아지역의 경제력이 세계적 인정을 받게 되었음.
- G20는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만들어졌고, 위기 이후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음.
- 위기 극복의 책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음.
- G20가 더욱 효과적이고 정당성 있는 협의체가 되는 것 역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함.

o 경제위기 극복과 G20

- 경제구조개혁에 있어, 동아시아의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거

의 개발 방식이 더 이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 불균형의 문제 역시 우리가 G20 프로세스를 통해 해결해야 함.
- 새로운 틀이 필요하고 국제금융기구들의 개혁이 필요하며, 보다 유연하고 세계적인 경제개발이 매우 중요한 아이템이 될 것임.
- 기후변화와 무역관련 문제 역시 중요함.

o 기후변화와 G20

- 기후변화문제는 매우 급격히 부상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이 이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음.
- 지난 피츠버그 회의에서도 이를 논의한 바 있으며, 이산화탄소 발생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됨.
- 2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에게 해수면 상승 등의 환경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G20에 기후 및 환경 관련 아이디어, 정책, 내용들이 제안되어야 할 것임.

o G20 의장국으로서의 한국

- G20 회원국과 172개의 non-G20 국가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아시아 국가들이 G20의 옵서버로 참여해야 함.
- 한국의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에도 큰 일조를 할 것임.
- G20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여러 국가의 정부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참여할 수 있으며, G20가 더욱 포괄적인 프로세스로 발전해 갈 수 있음.
- 성공적 G20 정상회의를 위해 지역협력을 강화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다 광범위하게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국가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패널토론:

“2010년 G20의 아젠다와 동아시아 및 한국의 대응과제”

Peter Peteri 미국 브랜다이스대학교 경영대학 국제금융학 교수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정태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선임기후변화담당관

Peter Dysdale 국립호주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

□ 양수길 KOPEC 회장

○ 연사 소개

- Peter Petri: 브랜다이스대학교 경영대학 국제금융학 교수이며, 현재 동서문제연구소(East-West Center) 선임연구위원, 미국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태평양무역개발회의(PAFTAD) 운영위원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APEC 연구컨소시엄 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음.
-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며, 현재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이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직 등을 역임한 바 있음.
- 정태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선임기후변화담당관이며, 세계은행(World Bank) 선임에너지경제학자,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 기후정책연구부장, 한국 에너지환경연구소 소장직 등을 역임한 바 있음.
- Peter Drysdale: 국립호주대학교 경제학 교수이며, 동아시아 경제연구소(East Asian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소장을 겸임하고 있고, 호주-일본연구센터(Australia-Japan Research Center) 소장직을 역임한 바 있음.

□ Peter Petri 미국 브랜다이스대학교 경영대학 국제금융학 교수

○ 글로벌 경제 위기와 아시아의 역할

-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으며,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 예상되었음.
- 하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조속한 개선을 보였는데, 여기에는 아시아의 역할이 컸음.
-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도 매우 유연하게 위기를 회복하고 있고, 일본도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있음.
- 이번 경제위기를 통해 세계 경제에 대한 아시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

○ G20 정상회의의 의의

- 그 동안 G20 정상회의를 통해 아시아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함.
- 한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는 한국의 훌륭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주요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함.

o 세계 경제 불균형과 미국의 재정적자

- 미국의 경우 재정적자는 많아도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인 만큼 어느 정도의 재정적자는 불가피하며, 현재 국제적 불균형은 관리 가능한 위협임.
- 2007년 미국의 재정적자가 2배로 증가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거시적으로 이는 30~40억 달러 정도로 세계 경제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지나지 않음.
- 미국의 소비가 최근 4~5% 감소하는 등 세계는 현재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특히 아시아의 몫임.

o 아태지역의 성장과 세계 경제의 신 원동력

- 지난 1년간 아태지역은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
-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시장의 원동력이 될 수 없으며, 미국의 현재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10%가 넘음.
- 따라서 세계경제가 회복되기 위한 신 원동력이 필요하며 아시아는 이에 큰 역할을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며, 자본 및 서비스 시장 개방, 사회복지와 생산성 향상 등이 어려운 과제임.

o G20와 국제 협력

- G20는 포괄적인 상위 체제인 만큼 모든 글로벌 이슈를 다룰 수는 없으므로, 한국은 국제적, 양자적, 지역적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세부 정책을 제시하는데 있어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작은 성장 동력이 모여 전 세계적 성장 동력이 됨을 상기해야 함.

□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o 전 세계적 변화 요인 예측

- 전 세계적인 경제 및 인구구조 변화: 2040년에는 중국이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유럽 국가들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유라시아 지역이 글로벌 통합에 주요 역할을 할 것임.
- 글로벌 불균형의 심화: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며, 한국 내에서도 그 격차가 더 벌어짐으로써 분쟁 발생의 소지가 높아질 것임.
- 식량, 에너지 가격의 증가 및 환경문제가 심화될 것임.

○ 글로벌 문제 해결 방안

-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국가가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모든 부분에 걸쳐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공조가 필요함.
- 현재의 글로벌 지배구조는 분산적이고 구태의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G20 정상회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음.
- 돌아오는 G20 회의에서는 과거 회의에서 닦아놓은 초석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아젠다를 다루어야 할 것임.

○ 국제기구체제개선

- 저개발 국가들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각종 국제기구의 체제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 전략이 필요함.
- 한국을 비롯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받으면서 무역과 금융이 많이 감소하였음.
- 비록 한국은 많은 긴급조치를 시행해서 다소 시장경제를 안정시켰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시장 친화적이지 않으므로 오래 지속된다면 오히려 시장과 경제에 해가 될 수 있음.
- 또한 여러 금융기관들이 각종 통화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국은 외환 보유고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겠으나, 외환보유고 유지비용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통화 스왑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함.
- 지역협력 강화를 통한 역내 공동 번영을 꾀하여야 함.

□ 정태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선임기후변화담당관

○ 현세대가 다음 세대 및 생태계에 미칠 환경적 영향

- 지표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향후 100년 간 지표온도는 거의 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례 없는 수치임.
- 기후변화를 살펴보면, 화석연료의 결과물인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재 380 ppm인데 21세기 말에는 최고 1260 ppm 까지 오를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으로 지표 온도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음.
- 해수면 변화를 살펴보면 21세기 말에는 1미터 가량 상승할 것으로서 일부 국가는 자취를 감추게 됨.

o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환경 격차 감소

- 개도국 대부분은 기후변화 위협에 이미 노출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현저히 부족함.
- 개도국은 경제개발과 기후변화 모두를 관리하여야 하는데 역량이 부족한 것이 개도국의 딜레마임.
- 선진국들은 2050년을 중기적인 시기로 정하고 상당 수준의 이산화탄소 감축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역시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목표 설정을 표명한 바 있음.

o 한국의 당면 과제

- 저탄소 경제를 글로벌 차원에서 구현하느냐의 문제
- 에너지 및 기본적 서비스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깨끗한 인프라 구축 및 투자를 위한 민-관 공동 자금 마련 방안
- 한국의 개발 경험 및 녹색 전략을 OECD 및 WTO, G20 등에서 다른 국가들과 공유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거버넌스 개선

□ Peter Drysdale 국립호주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

o 세계 질서의 변화

- 아시아 지역이 글로벌 경기회복에서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G20 프로세스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따라서 G20 정상회의에서도 아시아 관련 이슈가 많이 다루어 질 것이며, 위기 후 관리 및 극복방안이 아시아 중심으로 논의될 것임.

o G20 프로세스와 한국의 입장

- 중요한 것은 한국이 지속 가능한 회복 및 성장에 대한 대안을 G20 회의에서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 또한 G20 프로세스를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선진국들이 경기 회복의 어려움 및 재정문제를 언급하는 것과 같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내년 G20 회의에서는 자국의 어려움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들이 가진 능력과 자산을 통해 G20 회의를 주도해야 할 것임.

o G20에서 제안할 수 있는 실제 해결 가능한 대안

- (1) 거시경제 협력: 스코틀랜드 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화하여 다룰 것임.
- (2) 금융리스크 완화
- (3) 구조조정을 통한 균형 회복(rebalancing): 동아시아 및 선진국의 경제적 정책에 의해 전 세계 경제가 영향 받을 것이며, 구조적인 개혁 문제는 새로운 성장모형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함.
- (4) 금융 및 교역 부분에 있어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개선

o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 의제

- 특히 중국에서 경기부양책이 큰 효과를 보였고, 호주, 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경기부양과 출구전략 논의는 G20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함.
- 한국은 매우 풍부한 의제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주로 거시경제협력차원 절차, G20 프로세스 문제, 금융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 구조조정을 위한 논의, 글로벌 불균형 완화,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아시아 경제에서 녹색성장 동력을 창출, 금융 및 경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소비와 경제인프라 강화 등 다양한 주제가 내년 G20 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임.
- 중요한 것은 정치적 주기이며, 내년 미국의 선거시기와 맞물려 DDA가 조속히 타결될 수도 있음.
- 한국의 G20 개최는 향후 아시아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임을 반증하는 것임.

□ 양수길 KOPEC 원장

- 내년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outcome)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 Peter Petri: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경제협력 증진(long-term cooperation of world economy)
 - 현오석: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 체제(a new global governance system)
 - 정태용: 새로운 리더십과 혁신(new leadership and innovation)
 - Peter Drysdale: 아시아의 세계 경제·사회 발전에의 기여(Asia'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world economy and society)

폐회사

양수길 KOPEC 회장

- 'Asia is Emerging'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시아는 이미 부상하였으며 이제는 전 세계적 변화를 이끌고 있음.
 - 아시아는 이제 단순히 지역적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해야 함.
 - 이러한 논의를 위해 KOPEC은 Track 2 프로세스를 주도하여 진행할 것이며, 호주 및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참여할 것임.

/끝/